

광주發 ‘국정교과서 폐기’ 인증샷 릴레이

교육청 ‘역사 바로세우기’
윤장현 시장·장휘국 교육감 등
각계 각층 잇따라 참여
5월까지 캠페인 전개

‘국정교과서 폐기를 위한 릴레이 캠페인’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루게릭병 환자를 돕기 위해 진행됐던 ‘아이스 버킷 챌린지’를 본뜬 캠페인으로, 광주를 중심으로 번지고 있다. ‘아이스 버킷 챌린지’는 근육이 서서히 위축되는 난치성 희귀질환인 루게릭병(ALS) 환자를 돕고 사회적 관심을 끌어올리기 위한 이벤트로 전 세계적으로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참가자가 세 사람을 지목하면 지목당한 사람은 24시간 안에 얼음물을 뒤집어쓰거나, ALS 단체에 100달러를 기부해야 한다. 물론 둘 다 해도 된다.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VS 반대 캠페인’도 비슷한 방식이다. 광주시교육청이



윤장현 시장 장휘국 교육감 이은방 광주시의회 의장 민형배 광산구청장

지난 10일 ‘역사 바로 세우기 프로젝트’에 따라 페이스북에 제안한 게 시발점이 됐다.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인증샷과 함께 올리거나 얼음물을 뒤집어쓰면 된다. 현재까지 참여자들은 대부분 ‘국정교과서 폐기’ 쪽으로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10일 오후 “국정교과서는 폐기가 답”이라는 피켓을 작성하고 곧 글씨로 써 인증샷과 함께 광주교육청과 자신의 SNS에 올렸다. 장 교육

감은 그러면서 윤장현 광주시장, 민형배 광산구청장, 최영호 남구청장 등 3명을 지목했다. 윤 시장은 3시간 뒤, ‘5·18을 왜곡하는 국정역사교과서를 폐기하라’는 피켓과 인증샷을 올렸다. 윤 시장이 지목한 이은방 광주시의회 의장은 ‘국정 교과서 폐기하라’는 피켓과 인증샷을 찍은 뒤 김옥자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 등을 지목, 참여를 요청했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연수 중 긴급하

게 올린다’는 글과 함께 지목받은 지 1시간여 만에 인증 샷을 올렸다. 최영호 남구청장은 ‘역사를 특정세력의 입맛에 맞게 조작, 배우기를 강요하는 것은 몰상식한 행위’라고 폐기를 촉구하며 송광문 북구청장 등 3명을 지목했다. 송 청장은 ‘역사는 그들만의 소설이 아니다’며 동참했다. 광주시교육청은 3개월 뒤인 오는 5월까지 관련 캠페인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20 해질 21:31
해짐 18:14 달짐 09:10

저녁리 '봄'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다.

◇지역별 날씨 (°C)

광주	맑음	-2/8	보성	맑음	-3/8
목포	맑음	0/6	순천	맑음	-1/8
여수	맑음	0/8	영광	맑음	-3/5
나주	맑음	-4/7	진도	맑음	2/5
완도	맑음	1/8	진주	맑음	-3/7
구례	맑음	-2/8	군산	맑음	-4/5
강진	맑음	-2/8	남원	맑음	-5/7
해남	맑음	-2/7	축산도	맑음	3/6
장성	맑음	-4/7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서~북	0.5~1.5	북서~북	0.5~1.0
	면바다	북서~북	1.0~2.0	북서~북	0.5~1.5
남해	앞바다	북서~북	0.5~1.0	북서~북	0.5~1.0
	면바다(동)	북서~북	1.0~2.0	북서~북	0.5~1.5
서부	면바다(서)	북서~북	1.0~2.0	북서~북	1.0~1.5

◇생활지수

니졸중	높음
감기	높음
체감온도	관심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9:26	04:14
여수	21:51	16:42
	04:59	11:20
	17:18	23:35

◇주간 날씨

15(수)	16(목)	17(금)	18(토)	19(일)	20(월)	21(화)
☀	☀	☁	☀	☀	☁	☀
-3/8	-1/4	5/8	-2/8	-2/10	2/10	1/11

반갑다~ 하늘다람쥐·담비

10년만에 지리산 서식 포착



하늘다람쥐

지리산 피아골에서 멸종위기의 하늘다람쥐와 담비가 관찰됐다. 2006년 이후 자취를 감춘지 10여 년 만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남부사무소는 2006년 이후 피아골에서 자취를 감췄던 천연기념물 제328호 하늘다람쥐(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가 최근 다시 보금자리를 찾았다고 13일 밝혔다.

하늘다람쥐는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내에 자리잡은 수령 2000년 이상의 졸참나무에서 관찰됐다. 밤에는 주로 하늘다람쥐가, 낮에는 담비(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무리가, 이 나무에서 휴식을 취하는 모습이 무인카메라 등에 포착됐다.

최근 10년 사이 지리산에서는 경남 산정군에 속하는 멸종위기 식물원과 백무동계곡, 칠선계곡 일대에서만 하늘다람쥐의 모습이 포착됐다. 야행성 포유류인 하늘다람쥐는 눈이 유난히 크고 동그하며, 앞다리와 뒷다리 사이에 날개 역할을 하는 비막을 이용해 나무 사이를 날아다닐 수도 있다. 1년에 1~2차례 짝짓기하고 2~4마리의 새끼를 출산한다.

안시영 지리산국립공원 남부사무장은 “공원 내 멸종위기 야생동물에 대해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어느새...

겨울 한파가 한 풀 꺾이고 따스한 햇살이 가득 퍼진 13일, 광주 동구 동명동 주척가 담벼락에 영춘화가 노란 꽃망울을 터뜨렸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북방산개구리 산란·복수초 개화...무등산에 봄이 왔어요

무등산에 봄이 왔다. 봄을 알리는 ‘복수초’가 활짝 피었고, ‘북방산개구리’는 알을 낳기 시작했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정장훈)는 봄을 알리는 대표 생물인 북방산개구리가 산란을, 복수초는 개화를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북방산개구리는 몸길이가 6~7cm로 산개구리류 중 가장 몸집이 크며, 주둥이가 뾰족하고 눈 뒤에 원형 고막이 뚜렷한

것이 특징이다. 10~2월까지 동면하고, 4월까지 번식한다. 무등산 평두메 습지에서 집단 서식하는데, 이곳은 우리나라 국립공원 내 최대 북방산개구리 서식지이기도 하다. 복수초는 숲 속에서 자라는 다년생 초본식물로, 이른 봄에 눈이 녹자마자 꽃이 피우며, 오전에 꽃이 피고 오후가 되면 꽃잎을 다시 오므리는 특징이 있다. 무등산에는 약사암과 평두메 일원에 군락

지가 있다. 김보영 무등산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북방산개구리 산란, 복수초 개화를 시작으로 번식과 노루기 등 다양한 생물들이 본격적인 봄 소식을 전할 것”이라며 “무등산의 중요한 생물자원이 잘 보전하도록 야생생물 포획금지, 지정된 탐방로 외에 셋길 출입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 인화학교 ‘장애인 인권타운’ 첫 발

시, 건립 타당성 조사

영화 ‘도가니’의 실제 무대였던 광주 인화학교가 장애인 인권복지타운으로 변신하기 위한 첫발을 뒀다.

광주시는 13일 인화학교 부지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장애인 인권복지타운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사업비 5000만 원을 들여 7월말까지 진행되며 건립규모와 세부시설, 국내외 사례조사, 직접 사업비 산출, 운영계획 등을 담게 된다.

용역 결과에 따라 확정될 사업비는 대선공약과 연계해 확보한다는 것이 광주시 복안이다. 사업비가 계획대로 마련되면 오는 2020년 완공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옛 인화학교는 청각장애인 등 모든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를 아우르는 시설로 새롭게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시설은 청각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해 직업 재활시설, 수련시설, 장애인자유예술센터, 인권기념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장애인에 이용하는 개별 복지시설은 있으나 동일한 공간에 복지와 재활, 치유, 수련 등이 가능한 복합기능 시설이 들어서는 곳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광주시는 복지타운 건립 자원 마련 등을 위해 시와 시의회, 장애인단체 등 10명 인원으로 민관 추진단을 구성, 운영한다. 지난해 2월 구성된 부지 활용을 위한 TF는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하고 민관 추진단이 이어받게 될 예정이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징계 위법’ 국장 승소...여수시 항소 포기

여수시가 전남도와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A 국장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

여수시는 무안군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택지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전남도 의외에 셋길 출입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그동안 행정소송 판결문을 분석하는 등 항소 여부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와 분석을 벌였다. 그 결과 ‘형사소송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고 징계처분도 위법성이 없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특히 A 국장이 형사소송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사실상 항소 포기 쪽으로 기대를 접은 것으로 보인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511-중-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정행진·김신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 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임로 392(월곡2동 679-3)